

대선 D-23 호남 1500명 여론조사

호남 유권자 10명중 8명 “야권 단일화 효과 클 것”

30대 88.1%, 40대 85.5% 긍정적

단일화 효과

호남지역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사퇴한 이후 야권후보 단일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.

또한, 호남지역의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 문 후보 지지로 이동한 비율이 93%로 조사된 가운데 지지후보를 유보하는 부동층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.

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실시한 후보 단일화 효과의 전망을 묻는 조사에서 긍정적 전망을 한 응답자는 83.6%였다. 반면, 후보 단일화 효과가 조금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12.6%에 그쳐 긍정 평가가 71.0%포인트 높았다.

‘후보 단일화 효과가 많을 것’이라는 답변이 46.6%였고, ‘후보 단일화 효과가 조금 있을 것’이라는 답변은 37.0%였다. 후보 단일화 효과가 ‘별로 없을 것’이라는 응답은 10.4%, ‘전혀 없을 것’이라는 응답은 2.1%로 집계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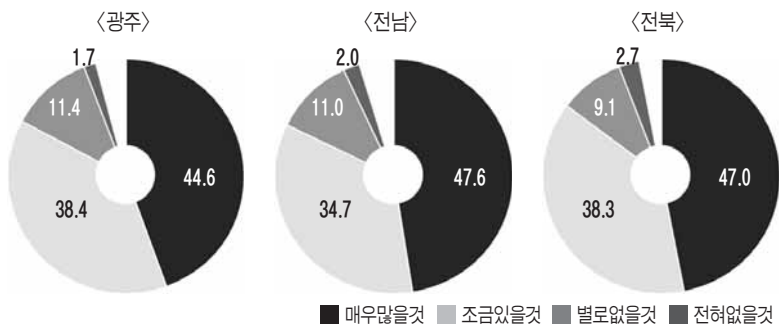
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88.1%, 85.5%로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높게 한 반면, 19세·20대에서는 78.4%로,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.

문재인 지지층의 경우 후보 단일화에 대한 효과에 대해 89.2%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다. 반면, 무응답층에서는 42.1%가 ‘효과가 없을 것’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해, 긍정적 평가(40.8%)에 비해 부정적 전망이 1.3%포인트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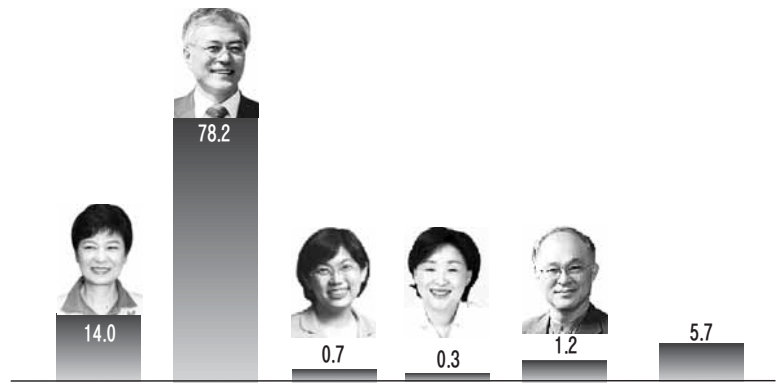
다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78.2%의 지지율을 얻으면 서 안 후보의 지지층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조사됐다. 지난 16~17일 실시한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, 문 후보가 41.4%, 안 후보가 39.6%의 지지율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 이후, 안 후보 지지층 가운데 90% 이상이 문 후보 지지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.

그러나 지난주 실시한 광주일보 여

후보단일화 효과 전망(새누리당 지지층 제외)



제18대 대선 다자대결



론조사 결과 무응답층이 1.5%에 불과했지만, 이번 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이 5.7%로 증가했다. 안 후보 사퇴 이후 4.2% 포인트 가량이 무응답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.

문 76.0% > 박 18.1%... 정권교체 열망 높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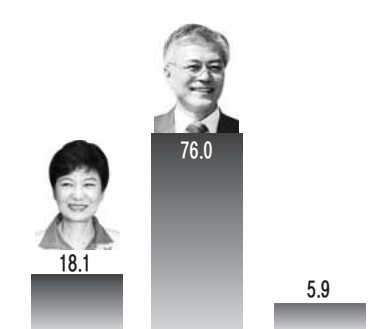
당선 가능성

광주와 전남·전북지역 유권자들은 연말 대선에서 민주당통합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진단했다.

18대 대선 당선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76.0%의 유권자들이 문 후보가 당선 될 것으로 내다봤다.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8.1%를 기록했다. 문 후보가 57.9% 포인트 앞선 것이다.

지역별로는 문 후보가 전남(77.5%)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북(76.3%), 광주(73.6%) 순이었다. 반

제18대 대선 당선가능성



면, 박 후보는 광주(21.0%)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북(18.7%), 전남(15.3%) 순이었다.

연령별로는 30대(82.5%)와 19세·20대(77.3%)에서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(69.4%)에선 가장 저조했다. 박 후보는 19세·20대(20.4%)와 40대(19.5%)에서 가장 높았다.

적극 투표층에선 문 후보가 79.2%, 박 후보가 16.4%를 기록해 문 후보가 62.8%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. 성별로는 문 후보(남성 75.0%, 여성 77.0%)가 박 후보(남성 20.8%, 여성 15.4%)를 각각 54.2%포인트, 61.6%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

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85% “반드시 투표”... 투표율 높아질 듯

투표율 전망

호남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은 ‘반드시 투표하겠다’고 응답해 투표율이 80%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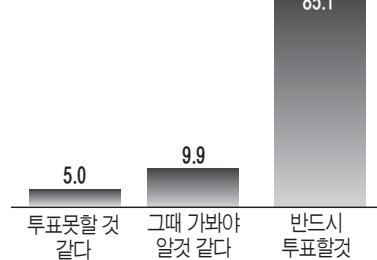
이번 여론조사에서 ‘반드시 투표하겠다’는 응답자는 85.1%에 달했으며, 투표할 못할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는 5.0%에 그쳤다. ‘그때 가봐서 결정할 것’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.9%였다.

지역별로는 광주가 87.2%로, 투표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가장 높았고, 이어 전북 84.8%, 전남 84.0% 순이었다.

연령별로는 30대가 87.7%로 가장 높았고, 19세·20대가 76.9%로 상대적으로 낮았다. 이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19세·20대 젊은 유권자 중 일부가 안 후보의 사퇴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.

지난 16~17일 실시한 광주일보 여

투표여부



론조사결과 박근혜-문재인, 박근혜-안철수 양자대결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19세·20대 연령층에서 각각 80.3%, 82.2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이를 감안하면 3~5%포인트 가량이 투표를 포기·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.

이번 조사결과처럼 오는 18대 대선에서 호남지역 투표율이 85%가 넘을 경우 민주당통합 문재인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진다. 호남의 투표율 상승은 곧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.

역대 대선선거 결과 통계를 살펴

투표율

였다. 광주는 16대 대선에서도 역시 78.1%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. 전남은 76.4%, 전북은 74.6%의 투표율을 나타냈다.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호남에서 93.37%의 높은 득표율을 올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2%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.

그러나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호남지역 투표율이 65.41%로 크게 떨어졌고, 당시 야당 후보였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호남에서 80%밖에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서, 32.53% 포인트 차이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대패했다.

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도 호남의 투표율은 76.36%(전국 평균 70.8%)

였다. 광주는 16대 대선에서도 역시 78.1%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. 전남은 76.4%, 전북은 74.6%의 투표율을 나타냈다.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호남에서 93.37%의 높은 득표율을 올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2%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.

그러나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호남지역 투표율이 65.41%로 크게 떨어졌고, 당시 야당 후보였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호남에서 80%밖에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서, 32.53% 포인트 차이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대패했다.

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도 호남의 투표율은 76.36%(전국 평균 70.8%)

안 후보 사퇴 다음날 유선전화 자동응답 방식

조사 어떻게 했다

이번 조사는 안 후보가 후보 사퇴를 발표한 다음날인 24일 광주·전남·전북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(Random

Digit Dialing) 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졌다.

표본 수는 1500명(KT등재 667명·비등재 833명)이다. 표본 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2.5%포인트, 응답률은 11.4%였다.

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야권 단일화 후 민주 지지율 70% 넘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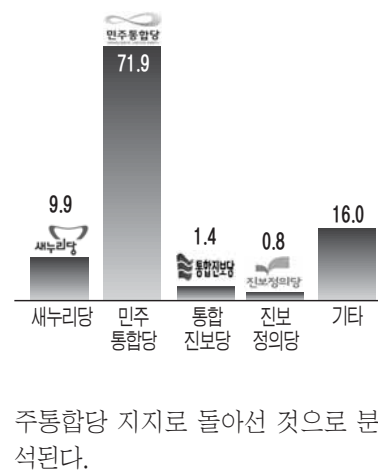
정당 지지도

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통합의 지지율이 70%를 넘어서며 새누리당을 62.0%포인트 차이로 압도했다.

야권 단일화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지난 16~17일 실시한 광주일보 여론조사결과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58.8%에 그쳤지만, 안 후보가 후보직 사퇴한 직후 13.1%나 급상승했다.

안 후보의 사퇴에 따라 그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를 관망해오던 무당층과 일부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민

정당지지도



주통합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.

지난 16~17일 실시한 본보 여론조사에서는 무당층이 24.1%에 달했지만, 이번 조사에서는 16.0%로, 8.1%포인트 하락했다. 새누리당 지지율은 2.7%포인트 하락한 9.9%를 기록하며 한 자릿수 지지율로 다시 떨어졌다.

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도 각각 0.7%포인트, 1.6%포인트 하락한 1.4%, 0.8%의 지지율을 보였다.

지역별로는 광주에서 민주당 68.9%, 새누리당 11.4%, 전남에서는 민주당 75.1%, 새누리당 8.1%, 전북에선 민주당 70.9%, 새누리당 10.6%였다.

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朴-文 전국 오차범위내 박빙... 부동층이 변수

SBS·중앙일보·MBC 여론조사

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사퇴한 이후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, 민주당통합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안 후보 지지층 중 문 후보 지지로 이동한 비율은 45%~55%로 조사된 가운데 지지후보를 유보하는 부동층이 커져 대선의 변수로 떠올랐다.

SBS와 여론조사기관인 TNS가 지난 24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RDD 전화조사(허용오차 95%, 신뢰수준 ±3.1%p)에서 박 후보 지지도는 43.4%, 문 후보는 37.6%로 나타났다.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 5.8%포인트 앞서서 수차례, 그러나 응답자의 18.1%는 답변을 유보했다.

중앙일보와 엘브레인이 같은 날 실시한 1000명 대상 여론조사(허용오차

95%, 신뢰수준 ±3.1%포인트)에서도 박 후보가 44.7%로 41.3%를 얻은 문 후보보다 3.4%P 앞서서 것으로 조사됐다. 부동층은 9.9%로 나타났다.

그러나 MBC와 한국리서치가 같은 날 실시한 1000명 대상 여론조사(허용오차 95% 표본오차±3.1%포인트)에서는 박 후보 39.2%, 문 후보 41.2%로 문 후보가 2%포인트 앞섰다. “모른다”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19.6%였다.

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독일보청기백화점. "행복한 소리"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. 다채널 방식 / 100% 디지털 고막형.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.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.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.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.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. 반영구적입니다.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H. 010-2082-6353 TEL. 062)383-6364

신용카드 한도 구매.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! 상품권 매입. 최고가 매입, 최저가 판매. 법인개인 출장가능!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! H. 010-2082-6353 TEL. 062)383-6364

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·분양 임대. "8,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" 1층 농협, 카페베네, 투사랑입점 확정. 2층 보험, 증권사, 호프, 병·의원. 3~5층 전문클리닉, 한의원. 6~7층 전문학원. 8층 패밀리레스토랑, 스카이라운지, BAR. 준공 완료

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.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. 총 118세대 (5TYPE / 41㎡~65㎡). "1층 상가 분양완료". "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". 모델하우스 12월 1일 오픈. TODAM huros Premium 도시형생활주택. 062-576-8938 · 016-885-0881